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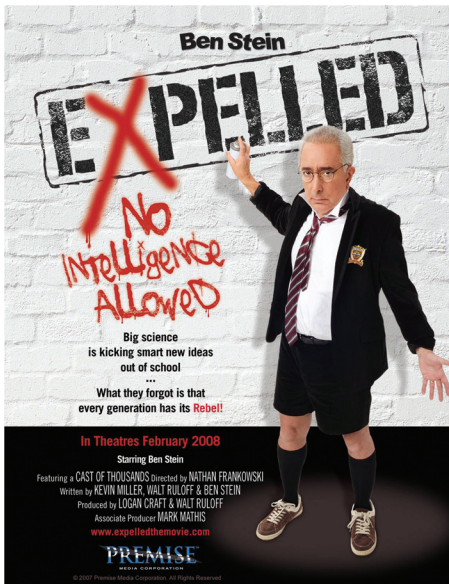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6 Number 6 • 6 2008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영화 “*Expelled*”와 원숭이 재판



지난 4월 18일 미 전역에 1,052 개봉관에
서 “Expelled (추방된 사람들)”가 일제
히 개봉됐다. Expelled는 지적설계(자연선택
에 의한 진화과정이 아닌 어떤 지적 존재가 세
상을 창조했다는 주장)를 믿는 미국의 교사와
과학자들이 소속되었던 기관에서 박해를 받아
왔다는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민
권 실천운동가, 경제전문가 겸 대통령 연설 원
고 작성자, 배우로 알려진 Ben Stein이 진행을
맡았다.

영화의 초반부에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자유
가 있는 나라이지만 과학에서는 자유가 상실되
어있다는 부분을 언급한다. 그리고 진행자인
Ben Stein이 지적설계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진화론자들을 번갈아 찾아 다니며 자신의 궁금
증을 물어보는 식으로 영화 전체가 진행 된다.

진화론을 반박하며 지적설계를 주장했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내용과 진화
론의 맹점을 듣게 되며, 한편 진화론자들에게는 지적설계가 과학에서 벗어난 영역임을 듣게 된다.

그러나 지적설계론자들의 부당한 대우 여부를 다루던 영화는 자연스럽게 진화의 진위 여부로 넘
어간다. 자신들 편 의 각각의 변론을 듣는 가운데 대표 진화론자들이 기원에 관한 추궁에 무모하고
부족하게 대답하는 모습들이 대두된다. 예를 들어 진화론자의 대표적인 Michael Ruse에게 무기
물에서 세포로 어떻게 진화되었는가에 관한 질문에 관찰된 적도 없는 backs of crystal(결정 덩어

리)을 반복적으로 대답만 하는 자세라든지, 후반부에서는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진화론자인 Richard Dawkins의 입에서 결국에 지적설계자의 존재 가능성을 끌어내는 장면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화 Expelled는 관람자로 하여금 현재 과학이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며, 그 패러다임이 문제가 있음에도 그로 인해 많은 순수한 과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영화의 시작도 베를린 장벽을 배경으로 시작하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한다. 즉 왕래의 자유를 가로 막았던 장벽처럼 의사소통의 장벽도 결국에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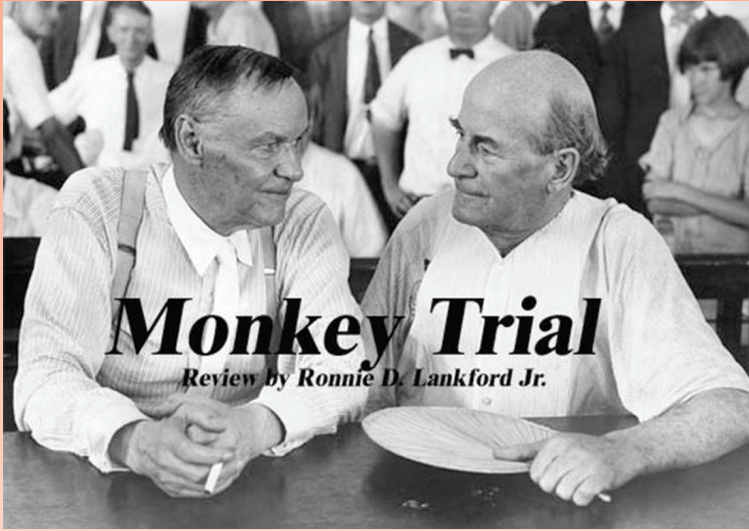
영화의 후반부에는 진화론이 사회에 끼친 문제도 언급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나찌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나찌즘은 진화론이 1900년 초에 전 유럽에 퍼진 후 생존경쟁의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온 가장 극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진화론이 단지 과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관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왔었다는 것까지 지적한다. 이러한 영화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다분히 진화론이 옳지 않으며 사회에도 악이 된다는 영역까지 일깨우려고 노력한다.

영화는 진화론의 부당성과 위험성, 그리고 그 편견으로 피해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과학계가 갖추어야 할 자세까지 비교적 잘 지적하였다. 기독교와 창조과학 측에서도 기존에 나온 어떤 영화보다 문제점과 방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단체로 영화를 관람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필자 역시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보아야 할 영화라고 믿으며, 이 글을 읽는 분 주위 사람과 자녀가 함께 시청하기를 권장한다.

실제로 이제 세속적인 입장에서 진화론의 병폐를 폭로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왔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반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번에도 믿는 우리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영화에 대하여 창조와 진화 사이의 진짜 문제의 시작을 알지 못하는,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진화론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반박이 더 거세질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야 한다. 벌써 이러한 반응들이 각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예가 과거에 미국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 바로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는 사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뉴스레터의 “원숭이 재판과 브라이언의 변론”을 참고 바람). 어떤 면에서 비슷한 예지만 발단에서는 영화 Expelled와 반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1925년 미국은 기독교가 강세였고 진화론 교육이 불법이었을 당시에 교실에서 Scopes라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진화론 가르쳤다는 이유로 부모들에게 고소를 당하며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때는 진화론에서 자녀를 보호하려는 이러한 자세는 진화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기회였다. 재판 결과도 교사 Scopes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상황은 반대로 흘렀다. 언론이 진화론 편을 들어주었고, 그 이후에 오히려 미국 교실에 진화론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빌라도 옆에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던 군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 원숭이 재판 때도 그랬고, 10여 년 전 캔ساس 평의회가 진화 내용을 삭제하자고 결정했을 때도 그랬다. 이번 영화 Expelled의 상영 이후 우리는 진화론의 비과학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장했던 사단의 노력도 볼 수 있어야 한다. 마귀의 꾀계를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엡 6:11). **이재만 /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원숭이 재판과 브라이언의 변론 *Creation on Trial*

1925년 미국에서 일명 ‘원숭이 재판 (Monkey Trial)’이라고 불리는 재판이 있었다. 피고인의 이름을 따서 ‘스코프스 재판(Scopes Trial)’이라고도 하는 재판으로, 사건은 그 해 7월 미국의 테네시 주의 데이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도시에서 발생하였다. 한 공립학교 교사인 스코프스가 수업 중에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것과, 이에 대한 반진화론자인 기독교인들의 고소로 시작되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당시의 주교육법상에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었던 상태였기에, 이러한 고소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1. 언론의 관심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시작된 작은 시골도시의 이 재판이 보도되자, 빠른 속도로 전 미국의 이목이 이곳으로 집중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모여든 언론의 규모를 통해서도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200여 명의 신문 기자들이 취재를 위하여 이 작은 도시로 몰려들었다. 방송계 대표자들도 대거 참가하였는데, 유명한 방송국인 시카고 트리뷴 WGN 에서는 이 재판을 미국내의 공판사상 처음으로 라디오 전국 중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65개 전신 교환수들이 몰려들어 사상 최다의 기사를 유럽과 호주로 보내는 등, 그 관심은 대단하였다.

2. 목적의 이탈과 제시된 진화의 증거들

칠일 간의 열띤 공방전이 오갔으며, 재판의 시작은 스코프스 교사가 주의 교육 법상에 유죄인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하였지만, 피고측의 변호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변론하기 보다는 진화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더욱 열을 올렸다.



진화론 측은 스코프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스코프스가 진화론을 가르쳤었습니까?’ 라는 질문조차도 없을 정도였다. 재판의 진행은 진화론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 확산되어, 스코프스 교사의 위법문제에 대비하였던 기소자 측은 적지 않게 당황시켰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몇 가지의 증거들을 제시하였는데, 그들이 제시했던 증거들은 오늘날에는 오히려 진화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 증거들은 오늘날 허구

로 밝혀진 흔적기관, 태아(핵켈)의 배 발생, 그리고 인류화석인 네안데르탈인, 호모에렉투스인, 필트다운인, 네브라스카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이었다.

3. 성경에 대한 피고측 공격과 브라이언의 대답

재판은 진지하고 복잡한 질문들로 이어졌다. 특히 일곱째 날에 열띤 질문과 대답은 감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재판의 절정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피고측 변호인은 성경의 무오성 문제까지 확대시켜 나갔다. 예를 들면, 뱀은 하나님이 기어 다닌다고 저주하기 전에 꼬리로 걸어 다녔습니까?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구하였습니까? 지구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500~5000 년 전에 이집트와 중국에서 살았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이었다. 그러나 기소자측 변호사인 브라이언은 이러한 난해한 질문에 대하여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능숙하게 응수하였고, 그가 모르는 대답에 대하여는 솔직히 시인하였다. 가열된 대화 중에 브라이언은 성경의 문구가 실제로 말하는 점들을 지적해 주며, 피고측 변호사에게 성경을 부연 설명하지 말고 그대로 인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질문의 초기에 브라이언은 ‘성경 안에 모든 것이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므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몰아 부치는 피고측의 함정을 피하였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비유적인 곳이 있다’ 라는 것과, 그러한 비유적인 언어는 적당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언급을 피고측 변호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해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라는 의미로 확대시켰다.

4. 재판의 결론과 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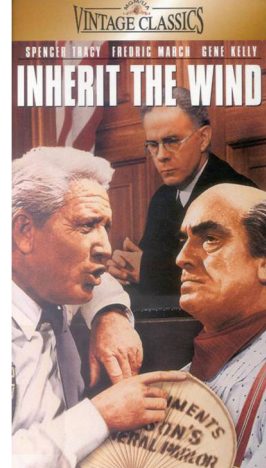
포성과 함께 시작하였던 ‘스코프스의 재판’은 피고 스코프스가 유죄 판결과 100 불의 벌금형이 내림과 함께 막을 내렸다. 재판의 결과 미국의 일곱 주에서 연달아 비슷한 법적 논쟁을 일으키게 하는 발단이 되었다. 더욱이 이 재판은 1960년대까지 고등학교 생물교과서에 진화론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당시의 추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당시 언론들의 보도방향은 사람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대부분의 기자들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기독교인인 브라이언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갖고 취재를 시작하였으며, 그의 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브라이언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사를 실었다. 한 기자에게 왜 재판을 취재하러 왔는가 하는 질문을 하자, ‘오, 저는 무슨 일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정도였다.

영화 관계자들도 가끔씩 흥미거리로 이 재판을 영화화 하였는데, 제작자들의 편견으로 재판의 중심내용과는 많이 벗어난 경향이 있었다. ‘세계의 가장 유명한 공판’이란 영화제목으로 장식된 영화들은, 재판을 재연할 때마다 당시의 중요하고 근본적인 논쟁보다는 주로 유명한 관계자들, 극화한 논쟁들, 절정의 모습들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편견을 가진 기록들은 무모하게 성경을 고수하려는 기독교인에 의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진화론자의 피해로서 이 재판을 인식시켰다.

‘원숭이 재판’에서 피고인 스코프스는 유죄로 선언되었지만, 실제로 이 재판은 진화론이 전 미국으로 확산되는 동기가 되었다. 재판과정에서 진화론의 증거들은 오늘날에는 케케묵은 허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진화의 논리성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기소자 측 변호사인 브라이언의 정확한 진화론의 문제제적과 그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향해서, 언론들은 브라이언을 성경을 무모하게 신뢰하는 고집쟁이로서, 그리고 피고측 변호인단을 진리를 향한 피해자로 표현하였다. 재판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어떠한 편견 속에서 살고 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추측된 이론인 진화론이나 동일과정설과 같은 진리로 향하는 길목의 장애물들 앞에서, 진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준비하여야 한다. 정리 | 이재만

이 글은 R. M. Conelius & John D. Morris(1995) Scopes : Creation on Trial의 원본을 축소 번역한 글임.





바벨탑?? 바벨탑!!! (2)

바벨탑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은 과거 역사에 대해 관심이 참 많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바벨탑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주 궁금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고고학자들은 바벨탑이 지구라트(Ziggurat, 그림 참조)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지구라트는 ‘높은 곳’이란 뜻으로 3~7층 구조로 되어 있고 기단이 60 x 45 m 혹은 30 x 30 m인 나선형 탑 모양의 건축물이지만 피라미드와 달리 꼭대기는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맨 꼭대기는 신전이나 신을 모시는 집으로 사용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아래층에서 직접 높은 계단을 통해 오를 수 있거나 나선형으로 오를 수 있게 되어 있다. 지구라트의 내부는 햇볕에 말린 벽돌이 사용 되었지만 바깥쪽은 불에 구운 단단하고 여러가지 색상과 빛이 나는 벽돌로 되어 있기도 하다. 현재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인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 30개 이상의 지구라트가 발견 되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구라트와 비슷한 구조들이 다른 문명지역에서도 발견 되었다. 예를 들면, 가장 오래 된 피라미드(기단 109 x 125 m, 높이 62 m)는 이집트의 3대 왕조 때(이 시대가 일반 문헌에는 BC 27 세기 무렵, 즉 노아홍수 이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노아홍수 이후임이 다음 호에서 다루어 지게 될 예정임) 건설 된 계단 모양의 것으로 바벨론 지역의 지구라트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시기보다 훨씬 뒤의 건축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마야 문명지(AD 200~1000)와 인도네시아(AD 800 년 경 보로부두르(Borobudur) 불탑)에서도 지구라트 모양의 건축물들이 발견 되기도 하였다.

“바벨탑은 어떻게 생겼을까?” 위와 같은 많은 추측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알 수 없음’이다. 바벨탑 사건 후에 지어진 건물들을 보고 그 이전의 건축물을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탑의 건설자들은 바벨에서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바벨 당



최우성
서부지부장,
생리학박사

시에는 과거 문명과 기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나 이집트 사람들은 각각 가족대로 흩어진 새로운 공동체이므로 바벨지역에 살았던 자기들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다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바벨 때와 똑 같은 건축물들을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바벨에서 반역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당시에 노아와 셈 (함과 야벳도 마찬가지로 이다)이 살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을 건축하던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도 조상들처럼 천 년 가까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성읍과 탑의 규모는 수백년~천년에 이루어질 엄청난 것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사용했던 재료는 알려지지 않았

만 석회석이나 홍수 기간에 퇴적되어 고화되지 않은 침전물들을 사용해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벽돌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벨의 계획이 그렇게 크고 길었다면 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을까?” 그것은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성읍의 기본 구조를 잡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이렇다할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계획을 다 마칠 때

보로부두루(Borobudur) 불탑(인도네시아)

이집트 Djoser 왕조의 계단식 피라미드

갈대아 우르(Ur)의 지구라트(이라크)

바벨탑 상상도

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창 10:7). 이것은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다. 우리는 노아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 바벨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하지 않도록 막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ACT NEWS



창조과학 탐사여행 | 지역소식 | 미국 창조과학 소식

2008 여름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Open

2008 여름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오는 8월 4-6일(월-수) 진행됩니다. 요청에 따라 여름은 겨울 탐사여행과 달리하여 Grand Canyon 뿐 아니라 Bryce Canyon과 Zion Canyon을 경유합니다. 이들 경유지의 특성상 노아홍수 전기와 후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표와 자세한 정보는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유학생교회에서는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시면 우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7월 Open 탐사여행

7월 17-19(목-토) 개인적으로 참여 가능한 탐사여행이 열려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6월과 7월도 가능한 탐사여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고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소식

시카고 헬로쉽교회 마하니님 청년부부를 위한 창조과학세미나가 3월2일 부터 12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약 18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3월 24-27일 시카고의 교회팀 18명이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은혜중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7일 시카고 한

시카고 창조과학학교 개강





인교회(담임 서창권 목사)에서 제6기 중부 창조과학학교가 개강되었습니다. 첫날 52명이 등록한 가운데 12개 교회에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4-5일은 시카고 지역에서 출발하는 제 2회 창조과학여행을 소개 합니다. 일정은 첫째 날, 오하이오 리버 화석공원 화석탐사; 둘째 날, AiG창조박물관을 관람하게 됩니다. 참가비는 입장료를 포함하여 일인당 \$200이며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는 이동용 박사이며, 참가신청 및 문의는 847-845-5368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창조과학 소식

ICR의 대학원 과정 신청 부결

지난 4월 25일 텍사스 고등교육위원회 (THECB, 위원장 Raymund Paredes)는 미국 창조과학연구소(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의 대학원 학위과정 신청을 거절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 2월호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텍사스로 이사한 ICR은 이미 학교 시설 등의 모든 필요한 준비를 마쳐 텍사스 고등교육위원회의 실사팀과 자문위원회가 각각 승인을 추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압력단체의 반대 입장에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이 경우도 세상이 올바른 과학을 추방한(Expelled)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ICR은 이 결정에 대응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화 “Expelled”

지난 4월 18일 개봉된 이 영화는 크리스천 영화도 아니고 젊은지구를 믿는 창조과학자가 만든 영화도 아니지만 미국 창조과학연구소(ICR)와 AiG, 그리고 홈스쿨기관들에서 적극 추천하는 영화로서 증거와는 다른 사실을 믿고 있는 진화론자들에게 지적설계를 언급하는 미국의 교사와 과학자들이 소속 기관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민권 실천운동가, 경제전문가 겸 대통령 연설 원고 작성자, 배우로 알려진 Ben Stein이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단체로 영화를 관람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보아야 할 영화라고 믿으며 주위 사람과 자녀가 함께 시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영화 ‘Expelled’ 와 원숭이 재판”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의 비밀

생명체는 깜짝 놀랄 만큼 복잡하다. 주위의 생명체들을 돌아보면 한결같이 완벽하다. 어떤 생명체건 내부의 기관들이 서로 돕고 있는 관계들은 대동소이하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는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이 하나씩 순서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연은 얽히고 설킨 먹이사슬에서부터 자원의 순환에 이르기까지 균형을 잡고 있다. 동-식물계는 아주 현명한 창조주가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음을 보여주는 모양을 하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그 완벽성을 보지만 어떤 창조자도 부인하고 있다.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복구할 수 없는 복잡한 생명은 누가 보더라도 초자연적인 창조자를 믿지 않을 수 없는데 진화론 과학자들은 생각도 없는 자연적인 원인이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논리적인가? 믿을만한가? 그런 결론을 허용하는 사상체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가끔 진화론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변수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주의에 대한 믿음이다. 자연적인 원인만을 허용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체계다. 이 추종자들 중에는 너무 지나쳐서 “과학”을 “자연주의”라고 재정의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 과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학적인 관찰에 대한 믿음만한 자연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 다른 자연주의자들은, 창조와 지적설계가 진실이라 해도 창조와 지적설계는 타당한 과학적 접근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모든 진화론자들이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진화는 그 중심이 무신론적이다. 그러므로 진화의 첫 번째 비밀은 모든 설명은 자연적인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다. 신이 있다 해도 신은 과학과 과학적인 설명에서 빼버려야만 된다는 것이다. 자연적인 설명들은 믿기 어려워도 그 설명들이 채택되고 초자연적인 원인들은 무조건적으로 피해버린다.

그 다음은 긴 시간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 시간은 어떤 것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진화는 어떤 변이체가 특별한 장점을 갖게 하는 유전적 변화인 “이로운 돌연변이”가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실제로 말할 수 없이 희귀한데 전체 유전정보(genome)에 새로운 정보를 더했다는 자료가 없다. 어떤 돌연변이가 일시적으로 이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자연선택에 의해 선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변화는 결국 생명체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서 전체 유전정보의 체계적인 복잡한 구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단 세포 생명체가 사람이 되기까지는 수 조 번의 이로운 돌연변이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유전적 변화 단계들을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진화는 수백만년이 수백만 번 지나는 동안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은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처럼 보인다.

세 번째는, 진화론은 투쟁과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자생존이란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 멸종된다는 의미이다. 몇 개의 선택된 것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형태들의 생명체들이 죽어야만 된다. 예를 들면, 공룡의 멸종 덕분에 포유류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가정한다. 죽음이 없었으면 진화의 진전도 없다.

자연주의, 시간,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과학적 기초 위에 있는가? 초자연적인 존재의 행위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자연 과정만 관찰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먼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과정들이 작동했던 엄청난게 긴 시간도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에 고정되어 있어서 접근할 수 없는 과거는 우리의 한계 밖에 놓여 있다. 죽음- 이것이 창조적인 능력인가? 자연선택에 의한 죽음이 더 고등한 생명을 낳는가? 정반대다: 죽음은 끝이지 시작이 아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를 과학적인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앞에서 설명한 의문투성이인 개념들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 비밀들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논리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그것들은 반대적인 증거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받아들인 선택이자 입장인 것이다. 진화론은 증거를 해석하는 한 방법인데 전세계적인 세계관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불안한 기초 위에 있는 세계관일 뿐이다.

존 모리스 박사,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Cosmic Magnetic Fields

이 우주에 있는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미국 창조과학연구소ICR에서 물리학 연구를 하고 있는 Russell Humphreys 박사는 지구,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 별들, 은하들, 심지어는 우주 자체의 자기장에 대한 설명을 전개해 가고 있다. 험프리 박사는 처음 창조된 지구의 물질이 물이었다는 성경 기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을 때 물에 있는 수소 핵의 각운동량(spin)이 맨 처음에는 모두 한 방향으로 배열되었을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제안하였다. 그런 배열은 우주에 있는 각 물체들이 강한 자기장을 갖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질서한 운동과 우주적인 사건들 때문에 이 자기장의 에너지와 강도가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물질에서 자기장의 주요 원천은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인데 이것들이 빠르게 돌아갈 때 강한 자기장이 생기게 된다. 물 분자에 있는 10 개의 전자들은 쌍을 이루고 있는데 각각 반대방향으로 돌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장이 서로 상쇄되어 커다란 자기장을 만들지 못한다. 양성자나 중성자는 전자에 비해 수천 배나 약한 자기장을 만든다. 전자의 경우와 똑같이, 산소 핵에 있는 8 개의 중성자들은 짝을 이루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도록 그룹을 형성한다. 8 개의 중성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산소 핵은 대량의 자기장 형성에 공헌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물 분자에 있는 수소 원자에 있는 단 한 개의 양성자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호작용이 아주 약하다.

정상적으로는 물에 있는 수소 핵의 각운동량들의 방향이 무작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기장이 서로 상쇄되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소 핵을 창조하실 때 수소의 모든 각운동량이 같은 방향이 되게 하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경우에는 아주 미량인 수소

행의 자기장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에 즉각적으로 존재하므로 각각의 질량에 따라 상당히 큰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정상적인 전자기는 하나님께서 물을 다른 물질로 전환하실 때 그 행성의 중심부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자기장을 보존하였을 것이다. 6,000년의 쇠퇴를 거쳐 이 자기장은 강도가 감소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구의 자기장은 지금 우리가 관찰한 정도로 감소되었는데 노아홍수시의 자기 역전으로 인한 에너지 감소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험프리 박사는 몇 년 전 자신의 이론을 태양, 달 등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게까지 확장시켰다. 그 이론은 그 천체들을 측정한 자기장의 세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 이론으로 화성 표면 암석의 자기화(magnetization) 뿐 아니라 천왕성과 해왕성의 자기장을 예측하였는데 우주선 보이저 2호가 측정한 것과 정확히 일치 하였다. 마지막으로, 올해 시작해서 2011년까지 진행 될 수성으로 보내는 우주선 메신저호는 험프리 박사의 네 번째 예측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¹ 오는 2008년 8월 창조론 국제 컨퍼런스에 “우주 자기장의 창조”란 제목으로 발표되는 험프리 박사의 논문은 더욱 새로와져 태양계의 자료들, 운석들, 목성과 토성의 커다란 달들에 적용을 하게 된다. 그는 우리의 태양계를 넘어서, 일반 별들, 자기별들(magnetic stars), 백색왜성들(white dwarf stars), 펄서들(은하계 내에서 펄스 모양의 전파를 내는 천체들), 은하들, 그리고 우주 자체에까지 그 이론을 적용시켜 볼 것이다. 그 이론은 자기자료(magnetic data)를 가진 모든 천체들에 대한 자기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에, 동일과정론자들에게는 우주 자기장의 기원은 아직도 엄청난 신비가 아닐 수 없다.

Larry Vardiman, 대기과학 박사, ICR 대기학과 교수/ ICR 연구 책임자

출처: ACTs & FACTs, April 2008

1. Please see Dr. Humphreys' article "Magnetic Message from Mercury," published February 5, 2008, on the Creation Ministries International website, www.creationontheweb.com.



이 두 침팬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는 공립학교에서
이 두 침팬지들 중에 **하나만**
지적인 창조자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말



지 난번 앤아버 부흥회에서 창조과학을 하시는 이재만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있던 성경에 나타난 지구의 나이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었다. 화석의 나이는 몇만~억년 되었고 공룡의 나이는 몇 십억 년 됐다는데 그에 비해 성경에 나온 지구의 나이는 불과 몇 천년 되지 않아서 고민도 많았다. 남들이 어떻게 공룡의 나이보다 창조된 지구의 나이가 더 적냐는 의미심장한 상대방의 눈총에는 딱히 대답해 줄 수 없어, 그나마 어디서 주위들은 얘기로, “하 나님이 침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한 살짜리 어린애로 창조하셨나? 20살 정도 청년으로 창조하셨는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구의 나이를 몇억년 될 수 있게 왜 창조 못하시겠어??? 흥~~~” 어설픈 한판 뒤집기로 뒤흔들기 캐기게 돌아서곤 했는데..^^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모든 유기물에는 탄소12와 탄소14가 같은 비율로 있는데, 유기물이 죽으면 그 안에 있던 탄소14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질소14로 변해 날라가 버린다고 한다. 그래서 남아 있는 탄소14의 양으로 그 유기물이 언제 적의 것인지 알아낼 수 있다. 그 탄소14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5,730년이 걸리고, 또 거기서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5,730년. 그래서 몇 억년이나 몇 십억 년이 되었다는 화석에서는 사실상 탄소14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2억 5천 만년 되었

다는 페름기 나무화석에서 탄소가 발견되었고, 이것을 역으로 계산을 하면 5천 년 정도 된 것이라 한다. 10억년에서 30억년 됐다는 유기물에서도 탄소가 있으면 안 되는데 0.09%가 검출되어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 6천년 정도로 계산 되었다.

또한 용암의 나이를 측정해서 맞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실제로 1980년 10월 26일의 용암을 6년 후에 측정을 했더니 34만년, 90만년, 170만년, 280만년이 되었다고 각 연구소에서 조차도 같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동위 원소로 따지는 방법은 맞지 않으며,

더욱 우스운 것은 연대측정방법이 사용된 것도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전에 만들어진 숫자들은 그냥 만들어진 숫자이며, 지금 동위 원소와 진화론은 파하고 있다.

지금 인구가 66억 정도 된다고 한다. “몇 천년 사이에 어떻게 66억이? 노아의 8식구가? 3명의 부부에게서 어떻게 60억이?” 인구 증가율이 매년 0.5%이면 4100년 만에 60억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한다. 90년 전에는 인구 증가율이 2%였으며, 지금은 연평균 1.49%라고 한다.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었다는 것은? 4.7%의 인구 증가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지금 보다 아이를 많이 낳았을테니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었다면 현재 인구가 요만큼 밖에 안될 수가 없단다.

그날 세미나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적긴 했는데, 선교사님 말씀을 모두 기억할 수 없는 게 넘 아쉽다(CD가 구워지면 딱딱따끈할 때 언능 가져 와야지...).

그 외의 여러 가지 말씀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경이로운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에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연구하는 단계라 아직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가는 성경에 소름 끼치게 전율이 흐른다. 결코 나와 멀지 않은 느낌!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지만 말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인터넷을 뒤졌다.

한동안은 창조과학에 빠져 지내지 않을까 싶다.

●앤아버 지역 교회 연합 창조과학 세미나 때 참석하셨던 분의 간증으로
<http://mizpah.egloos.com/2730013>에서 발췌했습니다.

이런 꼬리표가 붙은 화석이 발견될까요?

사역일정

2008년 ACT Schedule

6/3-5 창조과학 탐사여행 (주님의 영광교회, 714-684-4408)
 6/5-7 환돌선교회 (세미나, 최우성, 213-718-1950), LA, CA
 6/8 선한목자 장로교회 (세미나, 이재만, 617-285-3528), CA
 6/9-12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Conference 목회자, 425-488-1004)
 6/13 Irvine 온누리교회 KM 청년부 (세미나, 최우성, 714-290-5165), Irvine, CA
 6/23-26 창조과학 탐사여행 (동양선교회, 323-466-1234)

7/1-5 창조과학 탐사여행 (애들란타 새한장로교회, 404-509-8358)
 7/4-5 AIG 창조뮤지엄 관람여행 (시카고출발-AIG뮤지엄, 중부팀, 847-845-5368)
 7/17-19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집, 213-381-1390)
 7/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터링가 소망장로교회, 818-331-2481)
 7/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GM 사역부, 818-249-3139)

8/1-3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213-446-2821)
 8/4-6 여름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8/7-14 창조과학 탐사여행 (어린이 전도협회)
 8/14-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선한목자 장로교회, 909-772-9233)
 8/16-17 몽고메리제일감리교회 중고등부 (세미나, 최우성, 334-954-9055), AL
 8/19-22 창조과학 탐사여행 (House of Siloam, 일본인, 951-245-9500)
 8/30-9/1 창조과학 탐사여행 (월셔/앨버틴/샌디에고 온누리교회)

9/5-7 주님의 영광교회 (세미나, 이재만, 213-422-4939), CA
 9/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FMNC, 562-305-3726)
 9/12-27 몽골 국제대학, 캄보디아, 본국 (세미나, 이재만)
 9/29-10/1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10/6-8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10/10-12 한마음 침례교회 (세미나, 이재만, 925-828-3219), CA
 10/13-16 방하시대 탐사여행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713-789-5577)
 10/31-11/2 뉴욕성결교회 (세미나, 이재만, 718-948-0339), NY

11/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동양선교회, 323-466-1234)

12/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 (샌디에고 한빛교회, 858-733-1129)
 10/31-11/2 뉴욕성결교회 (세미나, 이재만, 718-948-0339), NY

후 원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
 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